

## 국문초록

### 특집 | 천황·자유·질서

#### 전후 천황제와 젠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과 황실의 위기를 중심으로 | 권숙인

투고일자: 2013. 5. 10 | 심사완료일자: 2013. 6. 3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이 연구에서는 황태자와 혼인 후 장기간에 걸쳐 '적응장애'를 앓고 있는 황태자비 마사코의 '시련'을 창구로 삼아 일본 천황제에 내포된 젠더 문제를 고찰했다. 마사코의 시련을 통해 천황제를 조망하는 것은 천황제도가 고수해 온 강고한 남성중심주의를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제가 겪고 있는 '위기'의 한 중요한 원인을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황태자 나루히토와 마사코의 혼인이 "황실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라는 수사 속에 적극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마사코에게 기대되었던 최우선의 역할은 황위 후계자 아들을 낳는 것이었다. 전후 상징천황제가 '열린 황실'을 표방하며 새로운 모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천황제의 핵심에는 시대의 변화를 부정하는 남계 왕조시대의 논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황위 계승의 위기에 직면한 2000년대 초두 여계의 가능성이 적극 타진되었으나 남계 후계자가 확보되자마자 여계 논쟁은 서둘러 봉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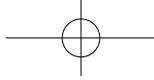
남계 계승자 확보 문제 외에도 마사코의 시련을 가중시킨 것은 사회 전반의 변화와 무관히 천황가가 고수해 온 가부장적 이에(家)제도와 일종의 '극장국가'로서의 상징천황제가 내포한 근본적인 취약성, 그리고 이런 속성들을 뒷받침하는 논리로서 '만세일계'에 대한 믿음 등이 있다. 천황제가 고수하고자 하는 이들 '유구한 전통'은 일본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으며 마사코의 시련은 그 한 징후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마사코의 '시련'은 현대 일본사회에서 천황제의 존재방식에 대한 질문과 황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핵심과 맞닿아 있다.

주제어: 상징천황제, 황태자비 마사코, 여성 천황, 여계 천황, 극장국가, 제도적 몸, 자연적 몸, 남녀 공동참회사회

#### 영화 속에 표현된 천황, 그리고 터부 | 강태웅

투고일자: 2013. 6. 10 | 심사완료일자: 2013. 6. 19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이 글은 일본영화에서 천황이 어떻게 묘사되어 왔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전전 일본에서 '일반인'이 천황의 신체를 대신해 스크린에 출연한 적은 없다. 전후가 되어서야 천황 역을 맡은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어떠한 제약도 없이 영화에서 묘사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천황의 숭고함을 해치는 '불경(不敬)'을 저지르지 않는 한에서 허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 글은 터부를 피해 천황을 극영화에 표현하기 위해 일본영화는 어떠한 고안을 해냈는지를 살펴보았다. 1950년대 역사상 처음으로 천황을 주인공으로 하는 메이지 천황 3부작이 만들어진다. 이 영화에서



메이지 천황 역을 맡은 배우는 어진영과 같은 분장을 하고 출연해 거의 움직임이 없는 연기를 한다. 전후 일본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다룬 영화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러한 작품 속에서 쇼와 천황이 조연으로라도 등장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쇼와 천황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공간을 차지할 뿐 연기를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러한 일본영화에서의 독특한 천황 표현은 러시아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화 <태양>과 비교되어질 때 더욱 두드러진다. <태양>은 쇼와 천황의 개인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작되었고, 이는 일본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천황을 일반인이 대신하여 표현하는 행위는 터부에 속하는 것이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존재함을 이 글은 밝혀냈다.

주제어: 천황, 일본영화, <태양>, 아라시 간주로, 알렉산더 소쿠로프

### 국제화시대의 황실외교 | 박순애

투고일자: 2013. 5. 22 | 심사완료일자: 2013. 6. 8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이 글에서는 주로 헤이세이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 황실외교의 양상과 황실외교의 정치적 이용에 대해서 고찰했다. 상징천황제에서 황실외교는 헌법이 정한 천황의 국사 행위(国事行為)이며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 외국 대사와 공사의 접수는 헌법이 정한 국사 행위이며 외국 요인과 회견, 국민의 환영 행사나 궁중 만찬회, 외국 공식 방문 등은 공적 행위다. 이 공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각이 책임을 지는 활동으로 각의(閣議)의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 행위다. 원래의 황실외교는 국제친선을 위한 것이지만, 특히 외국의 공식 방문은 각 정권의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었다. 1960년대의 대미 안보외교를 비롯해 1980년대 제3세계로의 자원외교, 1990년대의 중국시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 등에 황실외교가 이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30년간 진행되어 온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 문제는 아직도 전후 처리 문제와 함께 현안으로 남아 있다. 황실의 방한 문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배경에는 일본의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황실외교, 헤이세이 천황, 국제화, 상징천황제

### 영혼의 정치학: 천황제와 신종교의 접점 | 이찬수

투고일자: 2013. 5. 20 | 심사완료일자: 2013. 5. 28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일본에서 신도(神道)는 인간의 위로를 받지 못한 원령(怨靈)을 조상신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제사를 통해 조상신의 가호를 기원함으로써 현실의 풍요를 보장받으려는 민중적 신앙이었다.

이 글에서는 첫째, 메이지 정부(1868~1912)가 신도를 국가적 통치 시스템의 근간으로 삼으면서 천황의 정당성과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분석하고, 둘째, 그 과정에 담긴 종교적 측면이 신종교의 형성 과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메이지 정부는 부모에 대한 효행을 선조에 대한 제사와 연결시키고 제사의 대상을 일본의 신화적 기원인 아마테라스에까지 확대시켜서, 아마테라스의 후손이라는 천황을 숭배하게 하고 그를 통해 천황 중심의 통일 국가를 성립시키기 위한 정책을 폈다. 특히 전물자의 혼령을 위로하고 제사함으로써 국민의 호국적 자세를 강화하고, 그를 통해 국민의 정신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장치를 이 글에서는 “영혼의 정치학”으로 명명했다.

메이지 정부는 불가시적 영혼에 대한 국민적 담론을 조장해, 조상 제사를 통해서 가족적 질서를



확립하고, 천황 숭배를 통해서도 국가적 통일성을 확보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일방적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일본의 오랜 관습이라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외적으로는 그리스도교, 불교 같은 제도화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 과정에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자(死者)의 영혼을 위로하거나 조상을 숭배하는 종교적 행위가 문화 혹은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지만, 자신들이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는 의식은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대중적 정서를 반영하고 구체화시키며 다양한 신종교들도 탄생하게 되었다. 상당수의 일본 신종교가 죽은 이의 혼령과 관계 맺는 민중적 종교심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이지 정부가 시도한 “영혼의 정치학”은 주요 신종교들의 형성과 유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서도 덴리교 같은 선구적 신종교들은 신도의 국가화 같은 국가주도형 정책에 저항하며 독자적 종교 세력을 구축하기도 했다. 20세기 중반에 생겨난 릿쇼코세이카이(立正佼成会) 같은 불교계 신종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존중하고 개인의 종교적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일본 내 상당수 신종교들은 이런 식으로 국가신도 분위기에 저항하면서 개체 혹은 주체 중심의 근대성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천황제가 강화한 사자의 위령 및 조상신 숭배 전통에 기반해 성립되었고 천황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는 다소 취약하다는 점에서, 교파와 관계없이 신도와와의 연속성을 벗어나기 힘들다.

주제어: 천황제, 조상제사, 영혼의 정치학, 신종교, 릿쇼코세이카이

## 국가와 천황: 니시다 기타로의 정치철학 | 임영강

투고일자: 2013. 6. 14 | 심사완료일자: 2013. 6. 21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이 글에서는 ‘국가’와 ‘천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설정하여 니시다 기타로의 정치철학을 논함으로써 근대 일본 및 근대 일본 철학에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니시다의 국가론을 말할 때 민족주의, 국가 존재의 이유, 국제, 대동아공영권 등은 자주 언급되지만 천황에 대해 다룬 논고는 많지 않다. 그러나 양자는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거기서 니시다 정치철학의 축을 볼 수도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니시다는 국가와 천황을 둘러싼 언설에서 정치철학에서의 ‘자유’의 중요성을 들어 국가도 천황도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니시다의 정치철학은 자유로부터 선 혹은 도덕의 근원으로서의 물음이며 권력에 대한 견제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시대의 권력에 받아들여질 수 없었으나, ‘국가’와 ‘천황’에 대한 철학적 언설은 오늘날에도 재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니시다가 철학으로서의 인생 문제를 (재)정의한 내용을 끌어와 말한다면, 정치철학은 철학 그 자체로의 회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니시다 기타로(西田幾多郎), 정치철학, 국가, 천황

## 연구논단

###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 전쟁화의 전후 행방 | 김용철

투고일자: 2013. 6. 14 | 심사완료일자: 2013. 6. 26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의 전쟁화는 종전 후 미일 관계의 변화에 따라 우여곡절을 겪었다. 일본의 전쟁화는 종전 직후 전리품으로 수집되어 1951년에는 미국으로 이송되었고, 이송 후 약 20년이

지난 1970년 일본으로 반환되었다. 전쟁 당시 프로파간다 매체였던 사실로 인해 수집된 후에는 그것의 처분에 대한 GHQ의 부심, 오스트레일리아와 네덜란드의 이관 요구 등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에 이송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미국 이송의 이면에는 전쟁화의 일반 공개를 꺼린 전쟁화 제작 화가들의 의도에 의한 '봉인'의 측면이 있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으로 이송된 후 육군성과 공군성에 이관되었던 일본의 전쟁화는 1960년대에 일본인에 의해 '발견'되어 일본으로 반환되기까지 수 년이 걸렸고, 그 배경에는 냉전구조의 심화 속에서 동맹국이 된 미일관계가 있었다. 반환이 논의되는 과정에서는 '역사적 기록', '전쟁명화' 등의 수사가 동원되어 미국 이송 당시와는 판이한 인식이 제기된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반환 후 40여 년이 지나 는 동안 전쟁화의 공개가 지체되고 그것에 관한 연구 또한 미진하여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으나 본격적인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 전쟁화, 프로파간다, 전리품, 반환, GHQ

### 막말 조정의 학습원과 공가사회의 '정치화' | 김형진

투고일자: 2013. 6. 18 | 심사완료일자: 2013. 6. 27 | 게재확정일자: 2013. 7. 31

이 글은 1847년에 개교한 공가의 교육기관인 학습원(學習院)을 다루는 논이다. 학습원은 막말(幕末) 조정의 정치적 부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학습원이 조정의 '정치화'에 행한 역할은 먼저 학습원에서의 '교육'이 공가사회의 '정치의식' 형성을 촉발한 것, 그리고 학습원이라는 '공간'이 정치활동의 무대로 이용된 것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학습원이 공가의 정치의식 형성과 조정의 부상에 기여했다고 일률적으로 막연히 평가될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과 요인을 통해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하다.

학습원의 설립 이념과 특히 초기의 운영 실태를 보면, 조정 상층부가 학습원을 설립한 목적은 중하급 공가의 풍의(風儀) 쇄신이었으며, 이에 따라 유학에 중점을 둔 '인성 교육'의 방침이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습원 강사의 대다수가 아사미 게이사이(淺見綱齋)의 학설과 같은 강경한 존왕론을 이어받은 인물들이었던 등의 이유로, 실제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조정 상층부의 의도와는 달리 중하급 소장공가들의 정치의식이 고양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정 상층부 스스로조차도 1840년대의 단계에 오면 이미 존왕 사상을 깊이 내재화하고 있었기에 학습원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학습원은 '인성 교육'이라는 조정 상층부의 초기 의도를 넘어, 중하급 소장공가들이 1858년 미일수호통상조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섭관가 중심의 근세 조정 체제에 반기를 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주제어: 학습원, 조정, 공가, 천황, 막말, 존왕 사상